

서운영의 '집과 사람'



막혀버린 필터링 프로세스

얼마 전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이 공개되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 아울러 상위 10개의 주택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주로 다세대 주택, 일명 고급빌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필터링 프로세스이다.

이론이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우선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경제가 발전하고 또한 모두의 경제수준이 향상된다는 '낙수효과'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도 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1960년대 서울의 마포아파트는 14~17평 아파트였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독신자용 원룸이나 신혼부부용 투룸에 가깝지만 당시에는 중산층 아파트였다. 1970년대 서울 여의도와 반포에 들어선 아파트는 20~24평 내외였는데 당시 호화아파트라고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 후 1990년대 들어 분당, 일산 등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중산층이 그 집에 들어와 살다가 저축을 통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고, 빈 주택에는 그 아래 계층이 이사를 들어오게 된다. 이후 그 사람들도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더 아래계층이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오는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지속적인 주거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의 주

우 타당성이 있는 이론 같지만, 실제로 상류층을 위한 고급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서민층의 주거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가장 아래까지 내려가야 할 물줄기가 어느 수준에서 막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막혀버린 필터링 프로세스는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경우,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은 대략 3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분담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주 보상금을 쥔 채 인근의 더 저렴한 집이나 더 번두리의 집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낙수효과라고 그 낙수는 결국 바닥까지 적시지 못하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효과를 의심받고 있다. 이는 1989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한 이론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레이거노믹스 및 MB노믹스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처음 주장되었던 1989년은 세계경기가 매우 호황으로 돌아간 시절이어서 그 이론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 전세계

적으로 저성장 시기에 돌입하면서 대기업의 투자분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소비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 생산자들은 부유층의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고급스럽고 더 싸싸며 더 새로운 상품을 내어놓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급격히 유행했던 00평 리스 류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최근 유행하는 타운하우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이모저모 생소한 고급빌라 등이 그것이다. 이는 소량만 판매해도 그 이익이 높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판매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불황일수록 명품과 사치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이며, 고급주택은 계속 지어지지만 정작 서민들의 주택은 전셋집도 구하기 힘들어 더 작은 집으로 더 번두리로 밀려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정책은 보금자리 주택 혹은 행복주택으로 불리는 임대주택, 사회주택이 대부분이다. 주택도 점차 양극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필터링 프로세스 즉 소비의 낙수효과는 점점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건축칼럼니스트>

종교칼럼

익숙함이라는 상자를 벗어나



송 우 진 원불교 상무대학교장 주임교무

처음에 어색하게 시작했던 업무가 한 번하고 두 번 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 즈음 우리는 때때로 타성에 젖어 들곤 합니다. 모든 일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고 처음 느꼈던 설렘,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순간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사고들은 바로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나타해지는 순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

이런 정신적 나태함은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저녁 심고를 모실 때였습니다. 9시 반이 되어 목탁을 치고 법신불 사은님 앞에서 심고를 모시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목탁을 치는 순간까지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왔는데 심고 모시고 있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성을 모아서 기도 올려야 할 순간, 그 행위들의 익숙함에 의

해 정신적인 나태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익숙해짐이란 자신이 느꼈던 영적인 설렘조차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혹은 다양한 힐링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충만함과 평안을 잠시 얻었다 하여도 삶의 패턴에 다시 들어가면 어느새 얼마 전 느꼈던 평화로움은 온데간데없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나에게 큰 선물을 해준 여자인 구, 혹은 남자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 서로 간에 익숙해짐으로 처음 느꼈던 설렘과 고마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 들어간 직장,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그 일들이 익숙해지면서 점차 직장에 대한, 내 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결국, 익숙해짐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은 점점 커지고 마음에는 원망과 미움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

라나게 되고 맙니다.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하루를 새롭게 하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삶에 깊이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문구입니다. 늘 하루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이 순간을 새롭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새롭게 느껴보고, 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새롭게 느껴보고, 밥을 먹을 때 그 식사 한끼가 주는 즐거움을 음미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익숙한 것에 따라가지 않고 새롭게 삶의 순간들을 접하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힘든 일일 것입니다.

늘 익숙한 일들을 하면서 그 익숙한 일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성인들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런 깨어있는 삶 속에서 삶은 설레는 빛을 다시 찾고 고마움과 평화의 꽃이 피어 자랄 것입니다.

기 고

하계U대회는 '열린 광주'의 시작이다



김 준 영 광주시 대변인

명예와 자존심을 지킨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통과 화합에는 소홀했는지도 반성해볼 일이다.

이제 광주는 이러한 성찰을 토대로 오랜 단편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열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 한다.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광주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 출발점이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다. 하계U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다. 세계 170개국 2만여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온다. 광주에서 그들은 꿈과 끼와 열정을 펼치고, 우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것이다.

상상해보라. 인종과 언어,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젊은이들이 월드컵경기를 가졌고, 문화전당에서, 그리고 양림동 골목길과 무등산에서 함께 어깨 결고 춤추는 신명나는 한판 축제의 모습을. 그 뿐이겠는가. 그들은 광주의 수준 높은 자치공공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민주와 인권도 배워 갈 것이다. 광주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며, 광주와 하나가 될 것

이다. 우리가 하계U대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열린 광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기회들을 맞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호남고속도로 KTX가 개통돼 서울~광주 간을 1시간33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됐다. 반나절권 영역으로 광주가 묶인 것이다. 최소한 물리적 거리감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여기에 오는 9월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폐쇄를 극복하고 외부로 나아가는, 그리고 외부의 것들이 내부로 들어오는 핵심 통로가 될 것이다. 문화전당은 광주에 위치해 있지만 광주만의 전당이다. 이름에 '아시아'를 넣었지만 아시아로 국한하는 것도 아니다. 변방 취급을 당했던 아시아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세계디자인총회, 디자인박람회 등 많은 국제적 행사들이 빛고를 광주에서 개최된다. 이렇듯 광주는 '열린 광주'를 지향한다. 유무형의 거리와 간극을 좁히고 내부의 변화를 통해 광주를 외부에 활짝 열 것이다. 그리고 하계U대회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광주시민은 늘 당당했다. 더불어 수준 높은 자치공공체도 경험했다. 지난 1980년 5·18민중항쟁 발발 이후 시민군은 계엄군을 몰아내고 5월18일에서 27일까지 열흘간 완벽한 자치공공체를 이뤘다. 경철력과 행정력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열흘 동안 단 한건의 절도나 강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대동세상이라 불렀다. 광주는 이미 35년 전에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정의 민주 의식과 자존감을 잃지 않은 당당함을 보여줬다.

또한 모이면 그 무엇이 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광주에는 있다. U대회를 통해 광주의 이런 당당함과 수준 높은 공동체 의식을 다시 구현해야 한다. 그래서 오랜 단합을 열림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더 큰 뜻으로, 더 큰 포용력으로, 그리고 더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품어야 한다.

하계U대회는 광주가 세계 속의 도시로 자리잡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세계가 광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150만 위대한 광주시민이 모두 나서실 때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임을 위한 행진곡' 왜곡하는 보훈처 작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과 제정을 거부해 35주년 기념식을 파행으로 몰고간 국가보훈처가 또 다시 왜곡된 억지 주장을 내놨다. 보훈처는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점을 거론하며 이 노래를 제정할 경우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91년 황석영 씨와 북한 작가 리춘구가 공동 집필해 제작한 북한의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노래 제목과 가사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고, 자의적인 '종북몰이식' 해석일 뿐이다.

잘 알려진 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과 아학을 이끌다 숨진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1981년 소설가 황석영 씨가 가사를 쓰고 당시 전남대생 김중를 씨가 곡을 붙여 탄생했다.

국가 책임 보육문제 왜 교육청에 떠넘기나

정부가 지난 13일 두 가지 굵직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내놓았으나 각 시·도 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의 재정형편이나 교육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만 3~5세 아동의 무상보육과 교육서비스인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를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만약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쓰면 다음해 예산에 그 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감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 파탄마저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누가 봐도 부족한 무상보육재정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지방을 통제해서 오로지 대통령의 공약만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비친다. 공약 실현의 방안을 찾다가 억지

로 짜낸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문제가 많다. 학생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주기로 했다는데 농어촌 지역의 교육예산을 가져다 학생이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혜택을 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전남은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된다. 전남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이 한해 450억 원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의 자발적 통합도 포함돼 있는데, 결국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교육정책의 중요한 가치는 기회 균등이다. 적어도 초중등 교육만큼은 경제적이거나 지역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히 생산성 향상과 이익 실현의 극대화가 궁극의 목표인 기업도 아닌 바에야 교육정책을 효율만으로 평가하거나 재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無 等 鼓

머칠 전 세계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이 탄생했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된 피카소의 '일체의 여인들'이다. 낙찰가는 무려 1억9736만 달러(한화 1968억 원). 그의 작품은 역대 미술품 경매가 '톱10' 안에 모두 네 작품이 들었다.

이날 경매에서는 역대 2위이자, 조각품 중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도 나왔다. 스위스 조각가 자코메티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로 낙찰가는 1억4130억 달러(한화 1549억 원)였다. 자코메티의 작품도 '킴의 남자'(8위), '전차'(9위) 등 두

조각가 구분주

작품이 10위 안에 포진해 있다.

자코메티의 작품은 누가 봐도 그의 작품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비썬 마를 대로 마른 팔다리의 가늘픈 인간. 대개 인물 조각의 경우 얼굴의 표정을 통해 가장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반면 자코메티의 작품은 몸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고독하고, 슬픈 느낌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오랜만에 자코메티의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떠오른 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각가 구분주(1967~2003)의 작품이었다. 현재 광주시립미

술관에서 진행 중인 '아빠의 청춘'(6월 7일까지)전에 가면 구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김현승의 시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눈에 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의 조각은 모두 소시민의 고달픈 삶을 해학적으로, 또 아프게 표현한 작품들이다. 한번 보면 쉽사리 잊히지 않는 'MR.Lee'가 천정에 매달려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전해준다. 벽에 딱 붙어 있는 한 사내의 모습이

아득해 보이는 '위기 의식', 고개를 뒤흔 구고 서 있는 남자와 그를 바라보는 개를 조각한 '아빠의 청춘' 등 하나 하나가 가슴에 박힌다. 전시작은 아니지만 큼직한 웃게 되는 '개소금', '비스킷 나눠 먹기' 등도 인상적이다.

그의 손끝에서 빛이진 것은 '가정의 평화와 그 유지를 위해서라면, 구성원으로서 그의 정통성과 위치가 보장될 수만 있다면 또 하루를 버티어 내는'(작가노트 중) 인간 군상들이다. 인간적 쪽 구분주 전작전(全作展)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